

‘오페라의 유령’ 조승우 “목소리 안 나와...다 포기하고 싶었다”

소속사 굿맨스토리 SNS 통해 전한 소회
“주제 넘었다”며 빠져야겠다는 생각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출연 중인 배우 조승우가 연습 중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승우는 최근 소속사 굿맨스토리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지터뷰’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었다”며 “불과 드레스 리허설 때까지도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핑계일 뿐이지만 연습 초반부터 급성 부비동염, 축농증, 비염, 감기가 차례대로 찾아와서 연습 내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돼 연출님과 모든 배우, 스태프에게 걱정을 참 많이 끼쳤다. 한 달 남짓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고 모두에게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라서 ‘주제 넘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하고 빠져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공연이 올라가려고 이러나, 헛공을 할 수 있을까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부담감은 어깨를 짓눌렀다”며 “숨이 안 쉬어지기도 했고 다 포기하고 싶었고 모든 시간이 지옥 같았다. 뮤지컬을 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서울과 부산에서 이비인후과, 한의원 등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다 했지만 참

답했던 시간을 버티는 것도 더 이상 어려웠다”며 “하지만 조승우는 배우를 끝까지 믿어주고 좋은 에너지만을 주며 회복에 전념시켜준 제작진과 배우, 스태프들 응원 덕분에 기적처럼 최종 드레스 리허설부터 점점 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아직 회복 중에 있지만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초공은 올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페라의 유령’ 역을 맡은 조승우는 하이바리톤의 음역을 소화해야 했기에 처음으로 보컬 발성 레슨을 받았다고 했다. 성악을 배우진 않았다고 했다. 조승우는 같은 역의 김주혁, 전동석, 최재림과 달리 유일하게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유령 캐스트들이 성악을 전공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위축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가 몇 달 성악을 배운다고 10년, 20년 갈고 닦아온 그 배우들의 소리를 따라갈 수도 없고 그저 흉내만 내는 게 뻥할 테니 제가 갖고 있는 소리를 강화하고 음역을 서서히 높여 무리 없이 낼 수 있게 하고자 차근차근 시작했다. ‘내 소리에 내가 추구하는 색깔을 입혀보자! 말이 우선되는 노래로 접근해보자’는 게 제 바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공연의 막이 오르고 7번의 공

연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찾지는 못한 것 같다”며 “매번 공연을 하면서 느낀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쉬움을 같이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다. 얼른 회복해서 안정적인 소리와 연기로 보답해드리고 싶은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전했다.

아울러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을 만족시켜드릴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작은 감동이라도 드리고 싶은 게 현재의 큰 바람”이라며 “최고가 될 수 없음을 잘 안다. 단 한 번도 최고를 꿈꿔본 적 없었다. 하지만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은 변함없이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한국어 공연은 지난달 30일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개막했다. 뮤지컬계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주옥같은 음악과 1톤의 상들리에, 17층 규모의 오페라 하우스, 유령의 신비로운 지하 미궁 등 화려한 무대 예술로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1986년 런던과 1988년 뉴욕에서 초연된 이래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에서 동시에 35년 넘게 공연한 유일한 작품이다.

한국에선 2001년 초연했다. 한국어 공연은 200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시즌이다.

오는 7월엔 서울 사롯데씨어터에서 공연한다.

뉴스스



긴 머리에 푸른 갑옷...박서준 마블 최초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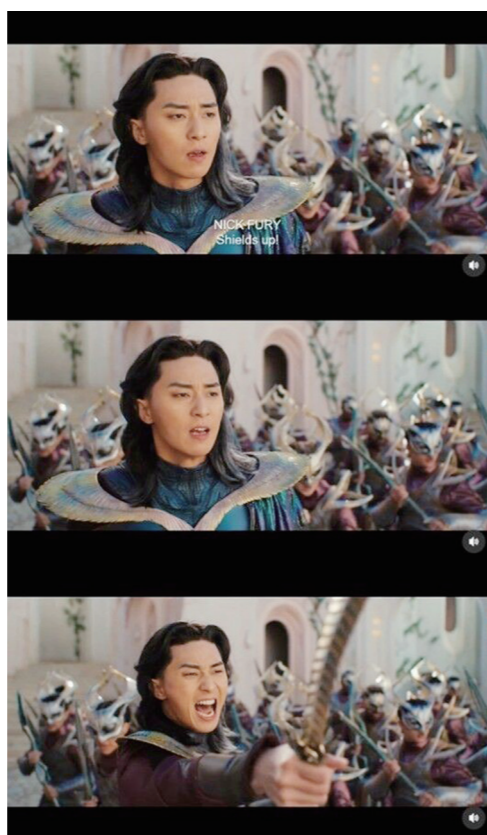
배우 박서준이 마블의 새 영화 ‘더 마블스’ 예고편에 첫 등장했다. 박서준이 이 작품에 출연했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었다. 극 중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마블 스튜디오는 11일(현지 시간) 오는 11월 개봉 예정인 ‘더 마블스’의 첫 번째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이번 작품은 ‘캡틴 마블’ 캐럴 댄버스와 모니카 랬보 그리고 ‘미즈 마블’ 카탈라 칸 등 여성 슈퍼히어로 3명이 팀을 이뤄 빌런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번 영상에는 ‘더 마블스’의 기본 콘셉트와 스토리 라인이 담겼다.

‘더 마블스’의 콘셉트는 ‘스위치’(switch)다. 2분 분량 예고편엔 캡틴 마블과 랬보, 미즈 마블이 각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세 사람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일상 생활은 물론이고 슈퍼 히어로로서 삶도 엉망이 된 세 인물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팀을 이뤄 함께 여정을 떠나는 과정에서 빌런을 마주하게 된다.

박서준은 캡틴 마블·랬보·미즈 마블이 도착한 어느 행성에 살고 있는 캐릭터로 1초 가량 짧게 등장했다. 박서준이 맡은 캐릭터가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서준은 예고편에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 푸른색 갑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왔다. 박서준이 맡은 캐릭터가 캡틴 마블 일행과 어떤 인연을 맺게 되는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캡틴 마블을 제외한 랬보와 미즈 마블은 디즈니+의 마블 드라마 시리즈를 보지 않은 관객이라면 누군지 알 수 없는 슈퍼 히어로



다. 모니카 랬보는 캡틴 마블의 친구 마리아 랬보의 딸로, ‘완다비전’에서 첫 등장했다. 완다가 살고 있는 웨스트뷰에 접근했다가 초능력을 얻게 된다. 미즈 마블 역시 드라마 시리즈 ‘미즈 마블’에서 처음 나온 슈퍼히어로다. 슈퍼히어로 마니아이자 캡틴 마블의 열렬한 팬인 10대 소녀 캐릭터다.

‘더 마블스’는 미국에서 오는 11월10일 공개가 확정됐다.

KCM, 리메이크 음원 ‘썸데이’ 발매



가수 KCM(강창모)이 리메이크 음원을 발매한다.

12일 오후 6시 KCM은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방구석 캐스팅 음원 ‘썸데이’를 공개한다.

‘썸데이’는 지난 2008년 방송된 드라마 ‘싱글 파파는 열애중’의 OST이다.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하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사에 담았다.

KCM의 감성에 맞게 곡은 새롭게 편곡됐으며, 솔직한 가사가 듣는 이들의 공감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KCM은 ‘사랑아’, ‘아름답던 별들의 밤’, ‘오늘도 맑음’ 프로젝트 그룹 M.O.M의 ‘지금 고백합니다’ 등 앨범 활동을 비롯해 웹툰 ‘바른연애 길잡이’, 드라마 ‘거짓말의 거짓말’ 등 OST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장예은 솔로 데뷔...‘체리 콕’ 기대 포인트는?

예은은 13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싱글 ‘더 비기닝(The Beginning)’을 발매하고 컴백 활동을 펼친다.

‘더 비기닝’은 솔로 아티스트 예은의 신곡 탄을 쏘아 올리는 앨범이다. 타이틀 ‘체리 콕(Cherry Coke)’을 비롯해 선공개곡 ‘스트레인지 웨이 투 러브(Strange Way To Love)’가 수록된다. 프로듀싱은 같은 소속사 식구인 라이언 전이 맡았다.

첫 홀로서기에 도전하는 만큼 예은의 새로운 변신을 향한 높은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 비기닝’의 기대 포인트를 짚어봤다.

◆‘체리콕 행운’ 안고 데뷔 8년만 첫 홀로서기

‘더 비기닝’은 2015년 그룹 CLC로 데뷔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예은이 8년 만에 처음으로 발매하는 솔로 앨범이다. 예은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와 ‘나비’ 그리고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은 ‘더 비기닝’을 통해 그는 더욱 견고해진 모습으로 솔로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새로운 소속사 슈퍼벨컴퍼니를 만나 전폭적인 지원 속 탄생한 앨범인 만큼, 이번 싱글을 통해 예은이 선물

하는 ‘체리콕 행운’은 어떤 차별화된 매력으로 다가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컬, 랩, 퍼포먼스 3박자 갖춘 ‘올라운더’로 도약

앞서 예은은 CLC 활동 당시 메인 래퍼이자 서브 보컬로 활약을 펼쳤던 예은은 다수의 트랙에 랩 메이킹으로 이름을 올리며 꾸준한 성장을 이뤄왔고, Mnet ‘GOOD GIRL : 누가 방 송곡을 털었나(이하 ‘굿걸’)’에선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실력과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다.

‘굿걸’ 출연을 통해 ‘올라운더’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눈도장을 독특히 찍은 예은은 이번 싱글 수록곡 ‘스트레인지 웨이 투 러브’ 작사에 참여했다. 예은은 ‘체리 콕’으로 탄탄한 보컬과 랩, 퍼포먼스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올라운더 아티스트로 다시 한번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인간 ‘Cherry Coke’ 예은의 반전 매력

타이틀 명이 ‘체리 콕’인 만큼 ‘체리’는 이번 앨범의 대표 키워드 중 하나로 꼽힌다. 예은은



프로모션으로 공개된 여섯 가지 무드의 콘셉트 포토에서도 키치함과 상큼함을 더한 스타 일링을 선보였다.

그간 시크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걸크러시 콘셉트로 큰 사랑을 받은 예은은 그까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체리 콕’에 승화시켰고, 팬들에게 익숙한 기존의 색깔과 새로운 매력을 조화롭게 완성해낼 예정이다.

유아인 측 “클럽 마약’ 보도 법적조치...가짜뉴스 적극 대응”

“무분별한 카더라식 보도 심각한 우려”

배우 유아인 측은 11일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민일보와 연합뉴스TV가 단독 보도한 유아인 관련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유아인 소속사 UAA는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나 비공개 원칙인 종결되지 않은 수사 내용 등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언론에 공개되고 더불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확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 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카더라식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UAA가 언급한 기사는 국민일보와 연합뉴스TV 보도다. 국민일보는 제보자 말을 인용해 유아인이 지인과 클럽·라운지를 돌며 마약 투약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술을 별로 주문하지 않았는데 과도하게 취해서 이상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구석 자리에서 담배를 했는데 일반적인 담배 냄새와는 달랐다”는 제보자 주장도 함께 실었다.

이에 UAA는 “해당 기사는 오직 제보자 A씨의 목격담에 근거해 작성됐다”며 “또 목격담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도 없이 추측만을 통해 보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주장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일보의 해당 보도와 관련, 법적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TV는 유아인이 마약류인 줄피템도 투약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아인이 투약 혐의를 받는 프로포폴·케타민 등에 이은 5번째 마약류라고도 했다.

UAA는 “유아인은 오랜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복용해 온 것이 사실이고 과거에 해당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6개월 간은 다른 성분의 수면제로 대체한 상태이고, 수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가 원칙인 관련 수사 내용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사실 확인 조차 되지 않은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확산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유아인은 지난달 27일 프로포폴·대마·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유아인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